



해명자료

대변인실 (02) 503-7011

담당부서 : 교정본부 의료과

사진없음

매수 : 2 매

주책임자	최강주 과 장	02-2110-3611
담 당 자	홍정기 사무관	02-2110-3388

제 목 :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

오늘 일부 언론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여성 재소자의 사망은 교도소의 관리소홀 탓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보도 내용

-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50대 수용자가 지난 3월 숨진 사건에 대해,
- 대한변호사협회는 교도소 측이 수용자가 간질을 앓고 있는데도 경과 관찰 없이 약물만 투약하게 해 결국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했으며, 또한 교도소가 “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상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”고 주장했다

□ 사실 관계

1.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치료를 실시하였고, 간병 수용자를 배치하는 등 수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스트레스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수용 초기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.

※ 사망자는 2010년 2월10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었는 바, 그날 부터 사망한 3월10일 전날인 3월9일까지 총 12회의 상담 실시

○ 사망 수용자가 간질 증세를 보여 의료과장이 직접 상태를 확인 하고 산소투여 및 수액을 처방하는 등 치료거실에 수용된 한달 동안 총 10회에 걸쳐 진료를 실시하였으며, 의무관의 외부병원 이송진료 의견에 따라 두 차례 외부진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여 치료거실로 혼거수용 하였고, 간병 수용자가 목욕·식사·세탁 등을 돕도록 하는 등 수용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다.

2.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닌 폐색전증으로 드러났습니다.

○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닌 폐색 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사망 수용자가 “1976년경부터 간질약을 복용하였다”고 진술한 바 있고 단양 서울병원에서 처방한 간질약을 복용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정기관내에서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